

# “자신을 바꿀때 남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베트남의 불교지도자이자 세계의 정신적 지주인 틱낫한 스님이 지난 17일 한국에 왔다. 스님은 현재 7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보르도 우 근교에서 수행센터 매화마을을 이끌며 난민구조운동, 강연, 집필 등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28일까지 국내에서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틱낫한 스님과 본지 논설고문 고은 선생은 지난 20일 구룡사에서 만나 법담을 나눴다. <편집자 주>

고은=스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술중에 이미 번역되어 있는 <평화로움>을 읽었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스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평화로움 자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고향에 온 기분

저는 여행이 승려의 생활이라 생각하는데 스님께서도 행선(行禪: Working meditation)을 강조하시는 만큼 여행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사찰에선 손님을 환구이라 부릅니다. 모쪼록 환구들이

### 평화운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내적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적 화해가 외부의 모든 것과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 로 오셨으니 많은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하얀 구름이라 하지만 바람일 수도 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기 전에도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한국식사를 했는데 몇백년전에 먹어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생애에 구름이나 바람이 되어 이곳에 있었으니 고향에 온 기분이지요.

고은=70년대에 베트남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곳을 여행하는 가운데 어느 시골마을이 저의 고향과 같다는 감명을 받았습니. 한 떨기 꽃이거나 이름없는 새가 되어 그곳에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고향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스님께서 보여준 평화운동은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 베트남 고승 틱낫한·본사 고은 논설고문 특별대담



◊ 틱낫한 스님 ◊ 고은 선생

## 평화운동은 보다 높은 삶 나눠 갖자는 것 혼자일 수 없는 세상... 모든 것과 화해 중요

본다. 저는 평화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화합하는 길이라 봅니다. 결국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나누어 갖는 것이 평화화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스님의 고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평화운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신의 내적 화해에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적 화해가 외부의 모든 것과 화해할 수 있게 합니다.

고은=현대사회의 평화는 개념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이 평화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내적 평화를 왕성하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관계의 확대를 중시합니다. 일체의 생물·무생물체까지 상호감응을 받치고 상호 존중 관계를 확인할 때 불교적 평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의 세계적 확대를 중시합니다만...

스님=자기자신과의 조화를 중시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자기를 다스린 이후에 대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비한 나'와 '무지비한 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면 유정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깊이 관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무한 발견하는 예지

고은=스님께서는 임제종에서 발전한 접현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새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접현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비롯하여 불교에 생소한 사람 즉 서구인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능한 쉽게 전달하려 노력하지요. 이 세상은 혼자일 수 없으며 사람과 태양 꽃 바람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합니다.

고은=꽃을 예로 들었는데 저만 해도 당장 혼자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저의 안경 구두 양복 등이 많은 관계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부처님께 내가 귀의하면 부처가 나에게 귀의한다'는 스님의 말씀은 화합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유한한 질서 속에서 무한을 발견하는 예지가 있습니다.

스님=부처·부부관계처럼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픕니다. 그래서 상호관계 속에서 평화만들이 중요합니다. 채식도 평화만들이 중요하며, 기독교와 가톨릭, 경제의 남과 북이 연결되어 화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비심에 입각하여 도와주고 이해하며, 함께 협력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에는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만들의 형제입니다.

고은=저는 미국에서 크지 않은 신앙공동체가 평화만들이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고, 프랑스에서도 신교와 구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제한 신앙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어느 목사가 거리에 천막을 치고 평화만들이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주의에 끌려가는 종교에 신선한 충격이며, 이런 작은 신앙공동체가 기성의 종단이나 교파보다 평화만들이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은 반항적인 편지는 잘 쓰지만 자비가 넘치는 편지는 잘 쓰지 못합니다.

고은=중국과 한국은 화선을 중시하는데 스님은 행선(working meditation)을 강조합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행선은 우선 무엇을 하면 서도 定念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천천히 걸는데 자신이 늘 깨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음을 즐기며 걷는 중에도 정념에 잠기지요. 천천히 걷는 것은 도착할 곳이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자신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은=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스님의 하시는 일이 아름답게 꽃피길 기원합니다. 긴 여행에 건강하십시오.

장소: 구룡사 회관  
일시: 95. 4. 20. 오후 3시  
정리: 차차석 (조시자료부장)

는 것을 보았고, 프랑스에서도 신교와 구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제한 신앙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어느 목사가 거리에 천막을 치고 평화만들이에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신주의에 끌려가는 종교에 신선한 충격이며, 이런 작은 신앙공동체가 기성의 종단이나 교파보다 평화만들이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 定念에 잠기는 행선

스님=세계에는 신앙공동체가 많이 있고 생기지만 서로 화합하지 않고 목적이 다르므로 오래가지 않으리라 봅니다. 효과적인 것은 자신과 화해하고, 이것을 단체생활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운동이 힘에 대한 저항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저항은 있으나 국민을 전환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신을 바꿀 때 남을

## 틱낫한스님 공개강연 요지

**18일 기자회견**  
○... 스님은 지난 18일 낮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오염 인간성과 사회의 문제들을 불자들이 앞장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우리나라의 선종과 자신이 창시한 접현종(接現宗)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선종이나 접현종은 불교라는 공통적인 뿌리를

**19일 연등국제 불교회관**  
○...같은 날 오후 5시, 스님은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재한 외국인들 위해 행선 수행법을 지도했다.

자각과 의식적인 호흡이 하나가 되는 '행선'은 틱낫한 스님의 기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실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접현종은 현대적 의미를 가미한 새로운 불교 수행법"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현대문명이 야기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개개인이 모두 이 순간을

**명상은 이 순간의 평온찾기 위한 것**  
장 중요한 수행방법 주의 하나이다. 스님은 이 수행법을 정신집중(mindfulness)이라고 부른다. 스님



○20일 북수침사에서 열렸던 틱낫한스님과 김옥구씨의 출판기념회.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성실한 결론을 얻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명상의 목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평온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19일 동국대 정각원**  
○...19일 오후 2시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이 주최한 고승초청 법회에 참석한 스님은 불교대학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사이공의 완한(Uan Hanh) 불교 대학교를 설립했던 스님은 "잡차 오실 부처님은 남성 또는 여성의 모습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다"며 "불교대학을

**20일 조계사 대웅전**  
○...20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조계사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한 틱낫한 스님 초청 법회가 열려 성황을 이뤘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부처님 눈으로 사물의 근원 보자**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과 행선 수행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인간이 부처님의 눈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눈으로 사물의 근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부처님의 수행을 본받아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천수천안 되어 이웃을 도와야**  
졸업하는 학생들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千手千眼)이 되어 고통 받는 중생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즉 불교대학을 부처님의 법신(法身)으로 생각할 때, 그 졸업생과 교수들은 부처님의 수 많은 눈과 팔이 되어 한다는 것.

'부처님'의 핵심은 사랑과 수행이므로 부처님이 불교대학으로 화

김재경 기자

### 생활 속의 불교 24

## “남의 아비 찾으니 사랑을 알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을 말씀하셨다. '나를 섬기지 말고 법을 보고 자성불에 귀의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서 '신묘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자면 억겁을 수행해도 될 듯 말 듯 하다'는 생각을 하기 일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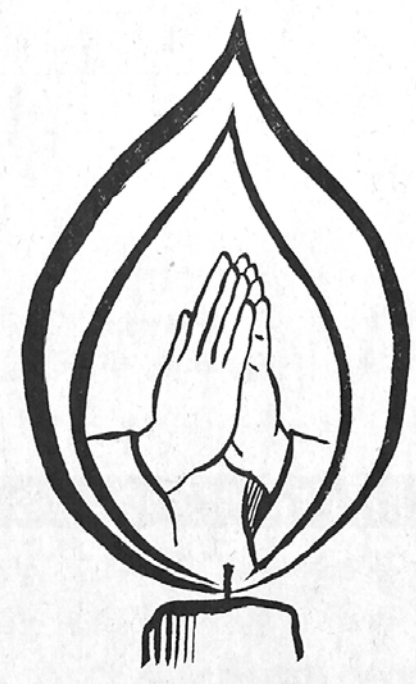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복이나 득복 주십시오.' 하기도 한다. 불도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왜 '법등명 자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을까?

인간의 힘으로 좀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면 차라리 '나를 열심히 믿고 내게 구원을 청하라.'고 하시지 왜 '나를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 보아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앉아서 가로등을 쳐다 보며 내 방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안애다 불을 켜야지 밖애다 불 밝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밖으로 찾으려니까 좋은 이름 찾아야지, 높다는 사람 찾아야지, 번



듯한 건물 찾아야지... 도무지 몸과 마음만 바랄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앞을 다뤄 가며 향촉 밝히고 공양 올리는 일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일인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당신의 노예로 삼자고 가르치신 게 아니다. 오관을 출중하게 갖추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노예처럼 살아 가는 중생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대 자유인으로 만들고자 법을 설하신 것이다.

법등명 자등명. 바깥 형상에다 빌고 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불을 밝혀 자성불에 귀의하라는 말씀이다.

자성불 의면하고 타력에 기대면 평생을 가도 물맛을 모른다. 내 아비 제껴두고 남의 아비 찾으면 평생을 가도 사랑을 맛볼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협찬: (주)삼주기계 - 대표이사 秋收旭  
자동차 엔진 및 부품  
자동차 기기 설계 제작·가공 전용기 설계 제작  
본사: 울산시 중구 효문동 750-1/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